

# 국회 문체위 '최속현법' 의결

국위선양 단어 삭제·인권 보호 강조... 신고인·피신고인 물리적으로 분리 조향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5년으로 확대... 문체부, 매년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실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성폭력 등 폭력을 행한 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실적 위주의 체육인 육성을 조정하는 '국위 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최속현법'을 의결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오경·이병훈·박정·박주민·이용·이용호·유정주·홍정민·안민석·김승수·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서 실적 위주의 체육인 육성을 조정하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정신과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 행복과 자긍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 선수와 소속기관의 공정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 개발 보급하기로 하고 불공정 계약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게 했다. 성폭력 등 폭력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유니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 가해자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 등 파견요청권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 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누구나 스포츠비리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스포츠유니센터에 신고 가능 ▲선수, 체육 지도자들은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명시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故) 최속현 선수는 2016년부터 팀 닥터와 감독, 선배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부터 대한철인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등 여러 단체에 가혹행위에 고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뉴시스

## '고 최속현 선수 가해' 김규봉 감독 검찰 송치

고 최속현 선수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철인3종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감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감독은 2013년부터 경주시청 직장 운동부 철인3종팀 감독을 맡아 최속현 선수를 포함한 소속 선수 11명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청이 지원하는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소속 선수 16명으로부터 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최속현 선수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소속 선수 5명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김 감독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감독이 경주시의 철인3종팀 지원 훈련비 등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챘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수사 중이다. /뉴시스



KBO 상벌위원회 참석하는 지성준

프로야구 롯데지아이언츠 지성준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미성년자와 교제' 의혹과 관련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관리단체 지정' 철인3종협회 "인권 보호 최선"

"체육회 징계 험히 받아들일 것"

고 최속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대한철인3종협회가 관리단체 지정 징계를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철인3종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고 최속현 선수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철인3종을 사랑해주는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선수를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지난 24일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원은 모두 해임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협회를 운영하게 된다. /뉴시스

## "프로야구 '거리두기' 지켜야"

정부, 부산 사직구장에 경고... 향후 미준수시 입장문제 재검토

정부가 프로야구 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준수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향후에도 거리두기가 준수되지 않으면 관중 입장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라기획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지난 28일 롯데 사직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거리두기가 안 지켜진 상태에서 1루 관객들이 다수 모여있던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프로야구를 포함한 프로 스포츠 관중 허용을 입장했지만 정원의 10% 이내, 관중 간 1m 이상 거리두기 착석, 응원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큰 소리 응원 금지 등을 지켜야 할 방역 지침으로 제시했다.

손 전라기획반장은 "사실 프로야구나 축구 같은 프로 스포츠는 단계적으로 입장 관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초기 과정에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BO(한국프로야구위원회)와 함께 강력히 경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전라기획반장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강력히 경고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후의 관객 확대, 지금 입장하고 있는 관중까지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가운데 관중 입장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전주월드컵경기장 내달 1일부터 입장

인원 등 제한적으로 개방

전주시설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프로축구의 관중 입장이 재개됨에 따라 안전한 K리그 경기 관람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방침에 따라 8월 1일부터 프로축구의 관중 입장도 재개된다. 공단은 당일 오후 7시부터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관람객을 받을 예정이다. 단 방역수칙에 따라 허용되는 입장객 수는 전체 관중석 4만2048석의 10%인 4204석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제한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장 안팎과 각 출입구, 선수대기실, 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또 경기 당일 전북 현대 축구단과 협조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경기장 입장 후 관람객 간 1m 이상 거리 유지, 본인 좌석 정보 확인, 마스크 착용 등 관람객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순기 이사장은 "관중 입장 재개 방침으로 현장에서 생동감 넘치는 프로축구를 관람하길 원했던 다수 축구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다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축구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